



강북구의회
GANGBUK DISTRICT COUNCIL

의정활동보도

2018년 5월 7일
(월요일)

강북신문 5면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도연 의원

“인수동 공영주차장 선정 경위 밝혀달라”

김도연 의원은 지난 4일 열린 강북구의회 제21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인수동 294번지 일대 공영주차장 후보지 선정 추진경위에 대한 발언을 펼쳤다.

김 의원은 먼저 공영주차장 후보지 선정 추진경위에 대해 2016년 7월경 인수동 공영주차장 후보지 3곳중 1곳 인수동 294번지 일대가 구청에서 후보지로 결정됐으나 2017년 5월9일 서울시 투자심사 상정과 재상정이 2번이나 심사에서 탈락했고 이후 구청장이 직접 서울시방문 부시장 면담을 했고 2018년 3월말 조건부 심사에 통과가 된 사실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왜, 후보지 3곳중에 이 한 곳이 선정된 이유가 무엇인지? 2곳이 탈락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김 의원은 “구청장의 사업추진의 견서를 보면 인수동 사업대상 지역은 단독, 다가구 주택이 밀집되어 인구증가와 더불어 협소한 도로폭으로 인해 만성적인 주차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으로, 주차확보율은 74.9%로 주차여건이 매우 열악한 지역이라고 했다”라며 사실을 확인을 물었고 “서울시 투자심사에서 2번이나 탈락된 이유가 사업, 위치 등의 부적합성으로 알고 있다”라며 구체적인 탈락 이유를 답변 요구했다.



김도연 의원

또 김 의원은 구청장이 직접 서울시를 방문 부시장 면담을 해서 적극적으로 공영주차장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의 사실 여부와 조건부 심사통과에서 조건부의 내용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인수동 공영주차장 사업지내 대지는 총14필지이고 10필지가 2018년 3(심사통과) 이전에 매매가 이뤄졌다. 그러니까 후보지로 최종확정되기 전 1년 6개월만에 소유권이 71%가 바뀐다. 탈락된 후보지 2곳은 매매가 그렇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인수동은 2개의 합동 지역으로 빌라 밀집지역이어서 공영주차장의 필요성이 있겠다”라며 “인수동의 공영주차장이 꼭 필요한 만큼 적재적소에 설립되어져야 하고, 또한 사업과정과 결과가 투명해야 할 것 같다. 그래서 꼭 답변을 하시어 주민들의 의혹을 없애고 사업진행이 무사히 잘 마무리가 돼서 주민들이 활용의 가치가 높은 공간으로 이용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동북일보 4면

5분 자유발언

인수동 공영주차장 294번지 일대 의혹에 대해 질문

김도연 의원

(더불어민주당/인수동, 수유1동, 우이동)

김도연 의원은 2개의 합동 지역인 인수동은 빌라밀집지역으로 공영주차장의 필요하다며 인수동 공영주차장 294번지 일대의 추진경위에 대해 발언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2016.7월경 인수동 공영주차장 후보지 3곳 중 1곳인 인수동 294번지 일대가 구청에서 후보지로 결정되었지만 2017. 5월과 9월에 서울시 투자심사 상정과 재상정에서 2번이나 심사에서 탈락이 되자 2017. 10월경 구청장이 직접 서울시방문 부시장면담을 했고 2018.3월말-조건부 심사에 통과가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왜, 후보지 3곳 중에 이 한곳이 선정된 이유와 2곳이 탈락된 이유에 대해 물었다. 또 구청장의 사업추진 견서를 보면 인수동 사업대상 지역은 단독,



▲ 김도연 의원.

다가구 주택이 밀집되어 인구증가와 더불어 협소한 도로 폭으로 인해 만성적인 주차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며 주차확보율은 74.9프로로 주차여건이 매우 열악한 지역이라고 했는데 맞는지에 대해 물었다.

그리고 서울시 투자심사에서 2번이나 탈락된 이유가 사업, 위치 등의 부적합성으로

로 알고 있다면서 탈락이유에 대한 설명과 2017.10월경에 박구청장이 직접 서울시방문 부시장면담을 해서 적극적으로 공영주차장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이 사실인지와 조건부 심사통과에서 조건부의 내용은 무엇인가고 물었다.

마지막으로 인수동 공영주차장 사업지내 대지는 총14필지이고 10필지가 2018년 3(심사통과) 이전에 매매가 이뤄져 후보지로 최종확정되기 전 1년 6개월 만에 소유권이 71%가 바뀌었지만 탈락된 후보지 2곳은 매매가 그렇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맞는지에 대해 구청장의 의견을 물었다.

김도연 의원은 인수동의 공영주차장이 꼭 필요한 만큼 적재적소에 설립되어져야하고, 또한 사업과정과 결과가 투명해야 한다며, 꼭 답변을 해 주민들의 의혹을 없애고 사업진행이 무사히 잘 마무리가 돼서 주민들이 활용의 가치가 높은 공간으로 이용됐으면 하는 소망이라고 말했다.

강북구의회 김도연 의원, 5분자유발언

‘인수동 공영주차장 선정 추진경위’ 관련



강북구의회 김도연 의원은 지난 4일 강북구의회 제21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인수동 294번지 일대 공영주차장 후보지 선정 추진경위’에 대해 5분자유발언에 나섰다.

먼저 김도연 의원은 “2016년 7월경 인수동 공영주차장 후보지 3곳중 1곳 인수동 294번지 일대가 구청에서 후보지로 결정됐으나 2017년 5월9일 서울시 투자심사 상정과 재상정이 2번이나 심사에서 탈락했고 이후 구청장이 직접 서울시방문 부시장 면담을 했고 2018년 3월말 조건부 심사에 통과”된 사실을

밝혔다. 또 “왜, 후보지 3곳 중 이 한곳이 선정된 이유가 무엇인지?, 2곳이 탈락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구청장의 사업추진의견서를 보면 인수동 사업대상 지역은 단독, 다가구 주택이 밀집되어 인구증가와 더불어 협소한 도로폭으로 인해 만성적인 주차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으로, 주차확보율은 74.9%로 주차여건이 매우 열악한 지역이라고 했다”며 “서울시 투자심사에서 2번이나 탈락된 이유가 사업, 위치 등의 부적합성으로 알고 있다”고 구체적인 탈락 이유에 대해 답변 요구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구청장이 직접 서울시를 방문 부시장 면담을 해서 적극적으로 공영주차장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의 사실 여부와 조건부 심사통과에서 조건부의 내용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또 김 의원은 “인수동 공영주차장 사업지내 대지는 총14필지이고 10필지가 2018년 3(심사통과) 이전에 매매가 이뤄졌다. 그러니까 후보지로 최종 확정되기 전 1년 6개월만에 소유권이 71%가 바뀐다. 탈락된 후보지 2곳은 매매가 그렇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촉구했다.

끝으로 김도연 의원은 “인수동의 공영주차장이 꼭 필요한 만큼 적재적소에 설립되어야 하고, 사업과정과 결과가 투명해야 할 것 같다”며 “그래서 꼭 답변해 주민들의 의혹을 없애고 사업진행이 무사히 잘 마무리가 돼서 주민들이 활용의 가치가 높은 공간으로 이용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유영일 기자